

기고



윤찬식 주 코스타리카 대사

‘K 뉴딜’과 ‘미주대륙의 한국’이 만나면

지난 11월 말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에 아드리아나 볼라노스 코스타리카 외교차관이 참석했다.

당초 지난 9월에 방한해 우리 외교차관과 고위정책협의회를 갖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첫 대면 외교의 상징성을 선점하겠다고 의욕을 불사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방한이 늦춰졌다.

방한 직전 차관은 필자와 만나 주한대사 출신인 로돌포 솔라노 코스타리카 외교장관의 특별 당부로 포럼 참석 외에도 광폭 일정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면서 웃었다.

코스타리카는 1948년 군대를 폐지하고 이를 헌법에 명시하는 등 평화, 민주주의, 인권존중 전통을 보유한 나라이고 글로벌 외교 무대에서도 기후변화, 비확산, 인권

등 선진 의제를 주도하며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탄소 중립을 표방하는 모범적인 환경보호 국가이기도 하다. 수력 풍력 지열 등으로 99%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생태 유토피아로 지구 생물종 다양성의 약 6%, 해양생물다양성의 3.5%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연안에 매장돼 있는 석유, 가스 탐사·개발을 대통령령을 통해 2050년까지 금지시키고 있는데, 아예 입법으로 대못을 박으려는 움직임도 있다. 환경 감수성이 강해서인지 개발, 탐사라는 단어를 싫어하고, 야생동물과 셀카 금지 캠페인(#stopanimalselfies)까지 전개하고 있어 해외 여행객들의 원성을 살 정도이다.

코스타리카는 오스카 아리아스 대통령(87년 노벨평화상) 시절이었던 2007년부터 독립 200주년인 2021년에 맞춰 탄소중립 목표를 추진하다가 2019년 2월에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탈탄소 국가계획 2018-2050’을 선언했다.

필자도 참석한 이 선언식의 사회를 보던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 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은 “이젠 탄소경제 체제를 역사박물관으로 모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일갈했다. 군대를 폐지한 평화의 아이국 국가이지만 탈탄소 선언은 또다른 군대폐지도 비유되고 있다. 이에 코스타리카는 2019년 유엔환경계획이 수여한 지구 챔피언(Champion of the Earth) 상을 국가로서는 최초로 받

았다.

코스타리카는 2050년까지 넷제로(Net-Zero)를 목표로 단계별로 이행해야 할 분야와 전략을 제시했다. 이 중에서 주목할 부분이 ‘탈탄소 교통인프라 전략’으로 15억 5000만불 규모의 친환경 수도권 전기여객열차(TRP) 사업이다. 코스타리카판 그린 뉴딜인 셈이다.

GDP 9%에 육박하는 재정적자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 극복이 변수이지만 우리 유관기관들은 사업 참여 기회를 잡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35년까지 공공버스와 택시의 70%를 전기화시키려는 미래 모빌리티 계획도 눈여겨 볼 부분으로 최근 관용차량 구매 사업에서 현대자동차 전기차(Ioniq) 100대가

선정돼 코스타리카 도로를 누비고 있다. 2018년 방한했던 코스타리카 영부인이 아이오닉을 타고 다니더라고 일본대사가 필자에게 능력을 뽐낸 적도 있었다.

코스타리카는 디지털 경제 전략도 추진 중으로 우리의 정부조달시스템 ‘나라장터’가 현지에서 성공리에 안착했다. 과학기술과 연구개발(R&D) 사업 관련 지식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지식플랫폼으로서 우리가 세계 최초로 코스타리카에 수출하고, 현지 대통령도 론칭 행사에 참석했던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NTIS) 시범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작년 ‘과거로부터 시간여행하여 미래에서 귀환했다’고 코스타리카 언론에 방한 소감을 밝혔던 와그너 히메네스 국회과학기술위원장의 발의로 탈세 방지, 세관행정 현대화 등을 위한 디지털 조세·관세 구축제도(Hacienda Digital) 법안도 최근 통과돼 임찰을 앞두고 있다.

이렇듯 코스타리카의 탈탄소-디지털 전략에는 우리와의 접점이 있고 서로 협력할 여지가 풍성할 것 같다. 우리 정부는 최근 경제구조와 체질을 대전환하기 위해

K 뉴딜(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을 천명하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까지 선언했다. 우리의 탄소중립 추진 발표가 나자마자 유엔은 즉각 환영하며 향후 구체적인 이행을 기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만큼 절박하고, 대안이 없으며, 국제사회의 연대가 중요하다는 반증 아니겠는가. 이러한 대전환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녹색혁명 협력을 일구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한·코스타리카 양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글로벌 그린(green) 외교 지평을 넓히고 주도할 수 있는 아방가르드 테마이기도 할 것이다. 여러모로 100년의 기원과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 초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우리 대사관과 함께 관람했던 카를로스 알바라도 대통령이 내외는 외아들에게 붉은악마 셔츠를 입히고 트위터에 가족사진을 공개한 적도 있어 주변 외교단의 부러움을 산 적이 있다. 최근 알바라도 대통령의 대국민 국정연설은 이렇게 마무리 되었다. “코스타리카는 중미의 스위스를 넘어 미주대륙의 한국(Corea de America)이 되도록 꿈꾸어야 합니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Lists various emergency and service numbers.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Includes contact info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editorial, advertising, and circulation.

존경과 사랑받는 공감언행 경찰 배려와 희생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책임수사 시행을 앞두고 경찰은 민원인과의 상호존중·소통하는 ‘공감언행 캠페인’으로 주민의 공감과 신뢰를 확보하려는 새로운 치안서비스 제공을 내걸고 있다.

취지를 담은 자정의 일환이라고 본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배려와 희생이 어떤 것인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할 때 그에 맞는 적극적인 설명과 조언을 아끼지 않는 등의 노력을 했더라도 약자를 위한 배려는 이름으로 지나치게 관여하고 있지 않았는지, 혹은 경찰관이 행하는 배려를 너무나 당연한 민원인의 권리 행사인 것으로 인식하게끔 만들고 있지 않았는지, 경찰관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영

역을 넘었음에도 자기희생이라는 소명의식으로 포장해 강제하고 있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누군가를 위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희생하였을 때 그 희생에 대한 대가나 기대치를 떨쳐버릴 수 있겠는가? 그러한 경찰관의 희생이 오히려 민원인에게 큰 부담을 갖도록 만들 수 있지 않았는지? 물론 자기희생을 통한 타인의 생명 구조와 같은 고귀한 행동은 경찰관의 자부심이며 명예로운

일임은 의심해 볼 여지가 없다. 다만, 배려와 희생이 어떤 의미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막연한 생각만으로 응대하다 보면 새로운 캠페인 역시 스스로 격정거리를 키워 발목을 잡게 만드는 실수로 전락할 수 있다 것이다. 때문에 ‘책임수사 완수를 위한 공감언행 캠페인’으로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모두 한 번쯤 격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인 것이다. 김희정/순천경찰서 남문파출소 경위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견뎌낼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국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